

198 年 月 日

義 岩 朱 論 介
事 蹟 調 查 報 告 書

목 차

1. 의암사적 조사 보고서	1
2. 의암부인 탄생	3
3. 의암부인의 가계	6
4. 의암부인의 불행	7
5. 의암의 성혼	10
6. 의암부인의 진주행	13
7. 의암부인 왜적의 승전 연회	16
8. 의기 논개 지문	19
9. 의암사적 비명	21
10. 의 기 사	27
11. 수 명 비	29
12. 축석 의기 생장향 수명비	31
13. 수명비의 수난	34
14. 수명비의 햇빛	39
15. 수명비각 신축 역사	44
16. 의암 주논개	48
17. 논개의 비	49
18. 의암 주논개상	50
19. 의암 주논개 유허비	51
20. 의암사 건립	52
21. 의암사 현판	58
22. 의암사당 성역화 사업	60
23. 의암제 행사	67
24. 7,000그루 군민 식수 사업	69
25. 국비 및 지방비 천만원 사당 보수작업	72
26. 대동기문 2권, 선조사 53	74
27. 호남지 충의장	77
28. 장수지 절의장	79
29. 동감 강목	80
30. 월강사 실록	81
31. 의암사적 비명내의 각시	88

義岩事蹟 調査 報告書

1984年 10月 4日 長水繁榮會より 奉り

義岩事蹟を 調査 するに 指示に 依りて
同 事蹟 調査に 臨 したるが 天性の
たが なく 劣る 事あり 見聞知識が 不足
あり 四百年 後を 去り 四百年 前の
事を 追跡 するに 此の 如く 困難 あり 事あり
ゆえ 此の 如く 口傳と 野史と 其の内容は
一脈 相通じ ず 事あり 是れ 生澁 なる
事あり 是れ 記録 するに 尤も 困難 あり
根拠 する 事あり 事あり 是れ 事あり
事あり 事あり 調査 記録 する 内容は 是れ
事あり 事あり 事あり 記録 したる 事あり

첫째. 郷里에 口傳 되는 傳説

둘째. 龜石樓 境内에 있는 義妓 諭介 之 門
(旌門) 과 同門 内에 있는 事蹟 碑 名 外
長水 義岩 祠 境内에 있는 三石 碑

셋째. 長水誌 金北誌 湖南誌 湖南
節義錄 東鑑圖目 月岡祠錄
大東奇聞 文人の 詩等으로 區別
調査 記錄 하였다.

同 記錄은 是는 大體로 碑名等 各 事蹟에
文章 구성 및 記錄 方法의 모습은 異으리라.
은으나 史蹟事實의 모습은 異을것으로
確信 하므로 調査 記錄이 잘못된 點은
모는 이가 尙히 忠告 하여 主 人의 詳細
한 根據가 말을 外기를 라크면의 上記
史蹟을 調査 報告 한다.

1985年 5月

義岩 夫人 誕生

現 長水郡 溪内面 大谷里 朱村 마을
에는 朱遠文 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다.
이 분은 이 마을에서 지명환 선비로서
書堂 訓長 이었다 夫人은 密陽 朴氏 이다
이 두 분 사이에는 일찌기 大龍 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나 15세에 과질로 요사 하고 後子가
없이 썩썩 하게 살아 오든차 朴氏 夫人에게
40 中年에 胎氣가 있어 1574年 9月 3日 밤에
女兒를 분만 하니 이女兒가 義岩
朱 諭介 님 이다 諭介 님은 四柱가 特異하여
당시 사람들은 이상 하게 보았었다
四柱는 四甲 卽 甲戌年 甲戌月 甲戌時에
誕生하니 기이한 四柱이다 자라면서
총명이 과인하고 人物이 출중하여 높은 사람
들에게 칭송을 받았으며 訓長의 아버지

영에서 낚고 듣는 것이 모두가 知識이 되어
正式으로工夫하는 學童보와 월등한 實力
이 되었다. 하루는 學童들이 자기에 대한
책사가 몹시 못마땅하여 詩로 그들을
희롱 하는데 花高人不好이요 草盛拘難行
이란 詩를 지었다. 詩의 내용을 살펴 보면
自己 自信은 천길 번개위에 서있는 아름다운
꽃에 비 하였으며 學童들은 지혜 없이 뛰어
노는 개에 비유한 듯한 느낌을 준다. 요 요한
풍격 위에서 진드속은 글의 흐름 그 거만스런 듯한
어린 인물은 후일 자신의 고귀한 生命을 크게 값이
버릴수 있는 원천이기도 하였으리라 夫人의 업적
은 초 인간적인 소행 이었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
들이 큰 빛을 얻어 리우 앎이다. 왜냐 시가에서
태백에서 증진의 세상에서 살다가 증진유이

산화 하얗으리 머슴이 갈을리 없어서 더 좋은
기후를 못하리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義岩 夫人의 家係

夫人은 朱氏이고 貫鄉은 新安이며
義岩은 藝文館에서 내린 賜號이다
夫人의 家係를 살펴보면 中國 宋나라時代
성리 學者인 朱子를 中始祖로 하고 고려조
에 와서 禮部尚書 諱 印長 朝鮮朝 議政府
右贊成 勝遷承政院 右承旨 諱 綾으로 세대를
이러 夫人의 七代祖 舍郊 察訪 諱 武賢
이며 六代祖 贈通德郎 應杓에 이르러
경상도 안의현 서상면 망지리에 거주하였고
祖父 懋이 당시 長水 임대면 朱村里에
거주 하였으며 父親 達文 후씨가 義岩 朱
論介 夫人이라 傳한다.

義岩 夫人의 不幸

옛날에 선비의 신조는 흠이 없는 선비는
있어도 선의 것을 부러워 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구차한 생을 위하여 선의 슬화에 살기란 더욱
싫어 하였으니 夫人의 父親이 재물아라 하는
선비로써 財物을 알았으니 만우 하였으리라.
아버지가 1587년 (선조 20년) 겨울에 得病하여
이각치 못하고 運命의 危期에 이르니 義岩夫人은
藥指를 깨물어 父親의 입에 드리웠으니 父親은
壽命을 더 있지 못하였으니 夫人은 절로 슬화에
고아가 되었다. 傳하는 말에 依하면 夫人에게는
遠武라는 叔父가 있었는데 叔父는 天性이 어질지
못하고 酒色 광람아 썼다고 傳한다. 흰근 김응현
이라는 사환이: 살았는대 응현에게는 白疾不具의
아들이 있었다 叔父 遠武는 義岩夫人을
김응현의 不具의 子息의 밑에서 키웠다고 傳한다.

그 내용을 참문한 義岩 母女는 安義縣
西下面 봉정 마을 外家로 避身하였다
김증현은 事實을 알고 長水縣廳에 提訴하여
또리들의 손에 두 母女는 拷박 되었다.
1588年 8월에 長水縣官衙에서 審判을 받았다.
事實 審門 끝에 최경희 현감은 無罪를
認定하고 두 母女를 석방 하였으며 소리려 依持
할곳 없는 母女의 딱한 사정에 母女를 官衙에
살도록 주선 하였다. 內衙夫人 羅州金氏는
義岩의 출수한 人品과 충명에 감복하여 親子息
처럼 총애 하여. 內衙의 모든 일을 살피도록 맡기고
百行의 女道를 가르키니 오조숙녀가 된 등기가 되
었으며 政治·文化 社會 各方面과 孝道와
忠道 烈道를 익히며 義岩의 현사다운 人格이
이때에 형성된것도 事實일 것이다. 현감이 충명
근면 忠實한 夫人은 諸般 일은 勿論 自然이

대장 觀察力과 愛着心으로 대관하여 관아
뜰에 소나무 한그루를 옮겨 심고 손수 물을
꾸어 정을 쏟으니 그 나무가 살아서 순 때로
長水郡廳 庭園에 키치는 숲고 문은 드리진
老松 한그루가 푸르고 푸르러 거실 그림의
節介를 알려주고 있어 이 나무를 義岩松이라
부르며 이 나무를 보면 義岩을 生覺하고
義岩이 生覺하면 이 소나무를 찾아 와서
보곤 하는 이고장의 뜻있는 人事들의
마음이다.

義岩의 茂婚

內衛의 生活이 此 畵에 따라 夫人의 일은 此 畵에 載으며 심지어 畵의 外로 內外 兩쪽의 事實까지 實 實이 記하여 畵다. 그 理由는 羅州 金氏 夫人이 病席에 在하여 內衛의 모든 일을 掌理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傳한다. 夫人의 當時 나이 17세가 되리 人物이 美的인 面에서 畵의 畵가 畵드러 畵나왔다고 傳한다. 달(月) 아래 畵 꽃처럼 畵하고 畵리처럼 畵는 香氣는 天女の 仙女가 下降한 듯 하였다고 畵하리 그 人物 그 畵 그 畵를 가히 畵작 畵수 있을 것 같다. 內衛 夫人은 畵 畵으로 畵에 오려 畵지 畵할 것을 畵작 하고 畵에게 畵하기를 自己 生前에 義岩 夫人과 畵를 畵하고 畵로 畵아 畵를 畵은 畵리 畵하였다 그러나 60세 畵에 畵소환 아이를

右室이러기 될말이라고 거절을 수살차 하였다.
어느날 内衛 夫人은 현감과 義岩夫人을
한자리에서 앉게하고 義岩夫人의 손을 잡으며
내가 너를 친자식처럼 길러 왔는데 내 이제
병이 나환듯 하여 현감의 후사를 너에게 付託
하니 拒絕하지 말아 달라고 하며 눈물을 흘려
애원을 하였다 이 인연으로 백발이 성성한 60의
老人과 갓 피어난 꽃처럼 젊은 女人의 香氣를
여름은 18세 소녀는 夫婦가 되었다
이 인연이 義岩을 품씨의 길을 가게 하였고
품씨에게 가서 2 12月이 채 안되어 서 원릉환
사후에 임하여 자기의 墳墓를 다하고 꽃다운
나이에 꽃같이 살다가 꽃잎처럼 떨어져 썩어
이 民族 精神에 그 이름을 永遠히 永遠히 빛날
것이다 이 사람들은 忠孝烈의 후예를 애도

하며 龜石樓 강상에 정무를 세우고 每年
7月7日에 치제 하며 그 장신을 복 받으며
그 뒤를 의로 하고 生長鄉 長水에서는
祠堂을 건축하고 影禱를 봉양 하고
夫人의 生日인 음력 9月3日 치제는 勿論
各種文化行事를 하며 1仁邑 6仁面이
이날 만은 하루 일손을 놓고 애드 하며 全
郡民의 懸望 같은 마음 그것은 참으로
郡民 總和가 이루어 지는 날이라.

義岩 夫人의 晋州 行

傳하는 말에 依하면 義岩夫人은 長水에서
최현감과 結婚하고 內衛의 재판 일을
살피는 中 최현감이 흥적현으로 전직 하였고
풍천 셋집에 잠시 은거 하였고 1592年
임진 왜란이 일어나자 최현감이 장수에 돌아와
의병을 초모 하여 왜적과 싸울 때 대조를
초기 하였고 최현감 경상 우도 병마 절도사의
대인 수행을 위하여 晋州城에 入城하자
義岩夫人은 남편의 대인을 대조 코져 후행
하였다. 道中 산행양을 지나자 배쪽에 불이
할만큼 양귀편까지 갔고 외할수 없는 어려움
에 흥착 하였으나. 천행으로 때마침 晋州城
으로 行軍하는 황진 장군의 구출로 無事히
晋州城에 入城하였다고 전하며 晋州城에
入城한지 2개월도 안되어 運命의 晋州城

대군은 작사왔다 1593年 6月 18日 왜적은
20만 大軍으로 晋州城을 포위 하고 팔각을
가리지 않고 城을 공격 하였다. 이때 晋州城
의 우리측 兵力은 최경희, 황진, 김천일
고종우, 장흥 등 계장군이 인솔하는 義兵
과 官軍의 수를 합하면 6만 大軍이며 성민
男, 女, 老, 少를 합하여 10여만명 이었다.
총, 칼, 창, 활, 도끼, 팽이 등 모든 器械까지
동원 되었고 女인들이 치마폭에 돌을 낀
城을 기어 오르는 敵을 치고 가마솥에 물을
끓여 敵에게 뿌리는 등 모든 힘을 다하여 10여
일간 公방전이 계속 되었다. 10일의 큰 비로
성첩이 무라져 황진 장군은 성첩을 보수 하며
싸우다. 6月 28日에 전사 하였고 29日 밤에는
城 서남각이 大雨로 인하여 40m나 무라져

敵軍이 기어 들러와 10여만의 우리 軍官
民과 20만 敵軍이 밀고 밀리는 일대 혼란
을 끝으로 우리 軍은 깨 하고 말았다.

사운을 잘못 해사카 아리라 하늘의 뜻이
우리 편이 안되서 천후의 환과 치욕을 남기고
말았다고 전한다.

義岩夫人 의적의 승전 연회

병서를 공부 하라 보면 무자비한 전쟁에도
쉽사리 승리가 있다. 적의 상을 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지장과 명장과 용장으로 구분된다.
지장은 攻心이라고 명장은 攻機라고 용장은 屠城
이라 하였는데 攻心을 노리고 攻機를 중이고
屠城을 하라 하였다. 攻心은 성민의 마음을 사기
적으로 들리는 방법인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
공성은 상을 치서 성민을 즐겁게 시키는 방법인데
다음 좋은 방법이며 도성은 성민을 죽이고 성의
문물을 소각 파괴 하는 방법인데 이는 승리는
승리나 가장 천한 승리로 평가하였다.
이것이 전쟁의 승리라 하였다. 그런데 1593년
6월 29일 밤 포곡촌 육조의 20만 군과 우리
軍官民 10여만과 30여만의 인파가 칠곡
같이 어두운 밤 장대 같이 쏟아지는 비속에

환영은 천지를 진동 하였고 이 환마당
전쟁에는 사람 움직임은 조수가 끓듯
하였고 사람의 죽음은 산이 무너진듯 하였
으리라 같이 밝은 진주성은 짙은 흑의 시냇물
을 이루었고 피 아의 죽음은 사체가 산을 이루
었다. 적들은 대오를 정비 하고 7月7日에 추석추
에서 승전 선회를 준비 하였으며 등 선회에 풍파
의 여보는 빠짐 없이 참여 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義宕은 하늘에서 주신 마지막
기회로 생 覽하고 宴會에 參席하여 특수한 계획
을 생 覽하였다. 여보의 말하면 宴會에 참여를
못하니 수안. 여보를 불러 자기 이름을 기적에
올리도록 명령 하였고 무외가락지(지환) 10인
를 준비 하였다. 7日은 맑았다. 치장 성복
하고 나간 義宕은 하늘의 仙女같이 고우니

그를 총사령관 모퉁촌 육조에게 안배 되며
가진 사양으로 그를 대치케 하여 삼강위압
으로 유인 그를 안고 도 도히 흐르는 삼강
의 짐은 풀줄기 속으로 뛰며 드나 여중
(女中) 만고 忠臣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父母에 孝道를 다 하였고 男便에게 烈行
으로써 나라에 忠誠 하였고 그 行蹟이
하늘의 해와 같고 별빛처럼 빛나는 구름
스스로 머리가 숙여진다.

義妓 論介 之 門

이 旌門은 의암 지사후 28년 되는데 가을에
주 1620년 광해군 12년에 전주 병사 남덕
하 공의 상서(상서)에 의하여 나라에서
賜額된 旌門이다. 1621년 봄에 건축하고
사액 현판을 붙였다 이 旌門이 義岩 史蹟의
로는 제일 먼저 세워진 사적이다. 그리고 여주의
성문으로서 禮朝에서 세워진 성문은 전국에서
세번째로 뿐이구나 그 가치는 가이 알 수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강릉에 있는 신 사임강 성문과 전주에
의암 성문 필암에 꼭서 부인 성문이라니 얼마나
값진 성문인가는 말하여 무엇하랴. 1950년 동광로
축적주 선역이 화재를 당하였으나 의기 성문 만은
무사히 보존 되고 있다.

義妓論介之門

庚申秋回使南公德夏狀聞持命旌表辛酉春鐫建

義岩事蹟碑銘

柳於于夢黃野談曰 論介者 晉卅官妓當萬曆癸巳
之歲金千鎰倡義之師入於晉卅以抗倭及城陷軍
散人民俱死論介凝粧靚服立于壘石樓下峭岩之
削其下萬丈直入波心羣倭見而悅之皆莫敢近
獨一倭挺然直進論介笑而迎之倭將以誘而引上
論介遂抱持其倭直投于潭俱死壬辰之亂官妓
之遇倭不見辱而死者不可勝記非止一 論介而多
矣其名彼官妓皆淫媚也
不可以貞烈稱而視死如歸不污於賊渠亦聖
化中一物不忍背國從賊無他忠而奇特與文哀哉
云此出於當時實錄則今於龜碑之辭不必爲灤宋
之語故仍以刻之係之以銘銘曰

獨峭其岩 特立其女

女非斯岩 馬得死所

岩非斯女 馬帶義聲

一江孤岩 萬古芳名

崇禎後凡十五年 壬寅四月 日五

一〇二〇年十月 日五 崇禎二年

義岩事蹟碑銘

우네기 봉인 야담에 말하기를 논하는 신주
사거였다.

그때는 판역(판역사) 세사년
김천 등 창외 장수들이 신주사에 들러서
일부인과 항쟁하였다.

성이 무너지고 군사가 흩어지니 백성이
다 죽었다.

논에는 치장성북하고 축적루하 작은
마애에 새겼다.

그 아내는 판결이내되는 강심으로
빠질수 있는것이요.

왜군의 무리들이 보고 기겁하였다.

그녀나 김천 가까이 오지 못했다.

한 사람이 바로 듣는다
근처는 웃으며 맞이하였다.
사람이 일어나 일어나서 나가서
앞으로 걸어 나가서 사람이 일어나고 몸을
흔들며 웃으며 일어나서 가다 죽었다.

그런데도 사람의 몸으로 사람을 만나
우를 보지 않으며 죽어서도 그 기록을
찾아내지 못하니 듣게 하라

그 이름을 잊었으니 사람이 듣지
않고도 듣는다 하며 정열이 다 칭송함
을 지 듣는다 하며 죽음의 기록을 잊지
않아도 듣는다 하며 사람이 듣는다
사람이 듣는다 하며 사람이 듣는다

또한 싱스롭게 되어 가는중의 하나하나
찾아 못하여 나라를 등쳐도 죄를 뉘르느
것은 죄의 아닌 충이니 그 기특함을
슬프다

이런은 뉘시 실록에도 밝히어졌으니
오늘의 비석에 새긴 말과 같은 중첩됨이
결코하여 아나하오로 그대도 말하느니라
이대도 새세에 이어간다.

그바라 홀로섰고 그대서 우뚝섰네
벼슬에 이바라 내리, 내씨 죽으리
찰았으며
바라에 이대서 아나바라 내씨 이르
소리를 들었소라

황강의 외로운 바위가 일방년의
꽃다운 이름을 얻었네

송정거취후 95년 임인 4월 日초

1722년 4월 日초 (경종 2년)

義妓祠

의기사는 축석루 정내 사철내 사역하고 쉼으로써
忠烈女神 義妓의 공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1824년 순조 24년에 정삼감사 이시현
에 의하여 세워진 의암사당인데 1950년
북괴 공산당의 명화로 소실되었으나 1960년
신주 고적 보존회내에 재축하였고 사당주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1층짜리 楹水門이
있고 사당앞에는 김은호 화백이 그린
초상화 명칭은 봉안되었는데 있다.

동사당은 지방문화재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래의 동사당은 義娘祠라 명칭
되었는데 1960년에 재축하고 현판은

義妓祠라 개칭하였다는데 잘못된 명명인가
싶다.

지수문에 거쳐 왜응은(縣板) 의랑사
(義娘祠) 관덕 제사후 2백 33년(萬曆
祭已後二百三拾三年) 甲申 母찰사
이지연외(觀察使 李止淵書)
지금으로부터 160 년전에 세워졌다

豎石碑

수명비는 현세 의암사당 외산문안 광장
남쪽 비각안에 세워져 있다.

이 비는 의암 가선지 253년후 1846년
현종 12년에 상수 현감 정주석에 의하여
세워진 두 번째 공적비다. 비문은 유부공손 부공
위로하며 송고현 현감을 후시에 선택하여 국문
교육의 시조로 삼고자 함의 뜻에 따라 쓴다.
이 비석이 세워진 처음 위치는 상수읍 상수
277번지 이 의종 석을 향해서였으나 현재
이곳 지명은 유지리(漣池)였다한다. 그곳
서쪽에 우이 있었다는 데서 지명이 그렇게
불리어 설수하여 또한 이곳은 상지리 여씨
많은 사촌들이 충실하므로 편인의 마음의
자음이 되도록 하거기에 세웠다고 한다 이 비

은 이곳에서 96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효녀의 길 영녀의 길. 충신의 길을 가르쳐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轟石義妓生長鄉堅名碑

疾風板蕩 不向不易烈士所難而一女子辨別大義
視死如歸 何其烈也想像當日 凜然烈氣 炳如日星
何其壯也 山有靈芝 水有醴泉 君子稱尚 況人之名
簾源於天性 布人之耳目者乎 憶余天旬腐儒 終无
成己之功 每於如斯人 豈功義烈 艷服起敬 尋常
感懷无 今於義妓堅名傳 後以生平趨走下風
願謹以書記識

崇禎紀元四丙午季秋

上澣知縣西原鄭曹錫謹識

子幼學基永謹識

碑有司密域朴吉仁

비밀책

공공이 돌아와 천천히 서서 물건을 지키며 돌아오를 거울수
없듯이 전쟁으로 인해 흐트러진 질서를 정돈 해세라드
어찌할수 없는데 변역한 여자가 큰뜻을 벌벌하고 죽음을
맞아보며 자기집에 들어가듯 거침이 보았으니 어찌 할이려
아기 할것이냐

거사 당일을 생각하며보니 머리발같이 차고 고추같이 매르
스 거리가 하늘에 해와 별같이 빛났으니 어찌 잠하여고
아니하랴

산에는 봉수대를 높이올리고 물에는 맛좋은 샘이 있으니
근처도 칭송하는데 하늘에 평안으로되야 칭송을 앓은손자.

절개는 불에 타고난 천성이라듯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것이다.

세상에 의 무야를 안보할 충정은 다하시 못하여 옥심
정성이 되겠으니 적은 선비라 오해려 무고잡누네.

내세에 "의" "열"의 큰공을 세르 이 여인에게 고르
뜻은 험트 정성이 생기고 항상 감쳐 무량하며 이씨

수평비를 사치시 후세에 전하고 큰 벼슬을 수한
바람에 물네가듯 그 정신에 의해 살것을 원하며
조심스럽게 늙음까지 세게다.

승정거친 네번씩 병오네 구월 상순 현강 시원 정주석
조심스럽게 비문을 짓고 아득 거행이 비문을 쓴

비문사 일성 박사 경인 제작

賢名碑의 受難

독한 일본은 차츰 침체되어 한국민까지 이르게 되었다.

939년에는 당시 총독 南次郎은 중국어를 발음하여 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한국민족 고유의 姓을 폐지하고 일본의 姓을 강요하고 우리 言語를 못쓰게 하여 문화 사회의 모든 우리 정신에 광한 문명의 모든 소각하여 민족의 뿌리를 끊어버려 선구적 지식인은 해외에 추방 또는 민족의 자취를 없애버린 다음 일본 민수 시키려는 한민족 말살정책을 하나 하나 실행해 왔다.

그런데 전국 282개소에 신사당을 짓고 신사화하는가 하면 소위 東方禮拜 일본 천

예뻐를 장모하였다.
 또와무도한 일제가 황제 총신들의 비석 주
 일변에 감정을 살수있는 역사적 유물이라고
 그냥 들리가 싶을리 없다.

사적물이 소재에 있는 지방에 영등에게 주고
 또는 소재에 보냈다.

이차령에 의해 위암 수명비도 수년을
 연장된 것이다.

장수음 장수리에 사는 정포라는 사람이
 아래부들을 소집하여 놓고 정과 햄머를
 준비하여 밤 12시까지 포장소로 포이라고
 지시하였다.

장수음 장수리 263번지	이차령 (72세)	생존
" " "	박수우	"
" " "	장홍철	사망
" " "	이이석	"
" " "	이순영	"

그날 밤 12시에 서시할 장소에 승객인들이
도착했음을 아는 승객은 곧바로 가서 고등차에
승차하였던 한 사람의 승객은 승객과 승객의
순서 한층이 되었다.

아들을 데려간 5인승 차량에 도착
하였다. 그들은 5인승 차량에 서시하였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이 차량은 승객
내부는 빨리 찾아 버리고 차량은 부속
문이라는 말을 하고 작별을 하였다.

승객이 승객을 데려간 승객이 돌아오고
드도 아내고 바로 아낸 승객에게 한층이
되어 있다. 작별을 하도록 두 무리한은
우리가 승객에게 가는 우리가 빨리 아침
날이 서늘하니 좋으니 우리가 서서 작별을
하러오니 해 놓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니 큰일

남다고 협박을 하고 사라졌다.

5인은 상의하였다. 비석은 겠이씨 허구영에게
죽은것이며 비석은 겠이씨 아나하씨 자남에게
맞아 죽은것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하였다.

그제야 땅을 쟁이치고 자남에게 오거전에 비석은
묻고나서 묻어보던 부처사 묻혔다고 하자는
의견으로 상의하였다.

땅을 쟁이치고 가마에 3장을 준비하여 성하게
싸서 쟁이 묻고 비석나무는 팔려 장수읍 그하리
숭곡에 갖다 버렸다. 세에 밝기전에 그들은
들어왔다.

그들이 묻서 비석은 부처사 묻고 나무는 모치에
버렸다고 하였다. 그들은 아꼈다고 칭찬을
받았다. 이 비석은 불행중 다행으로 꼭짜
석권에 구출되였던 것이다.

비석 땀물 시키는 1942년 11월 하순으로
생각된다고 5분중 생존자 두명은 말하고
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비석은 다시 밖으로
빛을 보았으나 땀물작업은 했던 5인은
그사실을 은폐하려 하였고 한국인 형사는
상수를 땀물시 사슴은 고인이 되었다.

연간모기트 양심에 있고 양심은 속이기
어디까지 비석의 팔공땀 땀물 사실이 밝혀
지지 않음. 밝혀지지 상충해 내려왔다.

수명비(豎名碑)의 햇빛

1945년 민족해방의 외사 열쇠를 사들였던 우리
동포들은 손에손에 대꾸기를 들고 산천이 땀과
가드득 푸썩썩 땅을 불렀다.

우물썩우물 농작을 열매우고 사나이 배웠다.

사나이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듯 못살게 굴었던
신사당을 무수히 일터에 세워놓아 소각시키고
통곡하듯 애가 배웠다.

이윽고 창수국립학교 교실의 창서 5학년 1반 학급
10명 정도의 학급이었던 신사의 여학생을 뽑아내어
불을 붙였다.

그리고 누리의 밤에선가 피서야 데가사든 소리가
나왔다.

그들은 창수국립학교 34회 학생들이었다.

이들이 밤에 들어나서 연장을 들고야 프인장소
베랑의 비석이 들켜서든 바로 그 장소였다.

이들은 활약하며 땀을 흘리고 보석을 찾아냈다.

한편에 부인들이 활약하며 물로 물을 씻어내며

보석도 보냈던 의양 보석에였다.

그리고 슬픈 눈물을 보며 흘렸었다.

이때부터 수년동안까지 2년 10개월만에 다시 햇빛을

보았다.

보석을 처음 찾기 시작하였던 당시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장수읍 장수리 거주	박	우	길
" "	천	기	창
" "	이	갑	선
전주농조이사 전주거주	오	홍	수
장수읍 장수리 거주	김	진	우
" 노하리 거주	박	희	민
" 장수면대농협장	한	승	태
무주군 거주	김	병	철
장수읍 노하리 거주	최	병	철
" 노곡리 "	이	병	조 (세양)
" 노곡리 "	백	병	선 (")
" 장수리 "	조	철	철 (")

이들은 그날을 회상하면서 12~13시에 소년들
이었던지 모르나 50여명을 모조리 잡아가
무량한 죄를 짓게 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결혼사건에 관하여 이 때에 이르러
이리 온갖이 되어 있었으므로 총서
주요 죄악에 관하여 이 때에 이르러
상소를 알리지 않았던 것이 되었다.

이들은 전 교황령 감찰관 신생이에게도 하여
다른 신생이에게도 한다.

이 때에 죄악은 브루크 가지를 지닌 죄악은
생각되나 다른 소중함을 느낀다.
그 당시 전 각국에 이와 유사한 죄악이나
유적 등은 사적들이 그들 쪽에 있었거나
소설에 의해서 부활하였는지 모르나 이 때에
남아 있는 사실이다.

전부 제국군 운동에 관한 것은 외교
사무에서 알도록 되어 있음 그 때에

황상외척에게 이사가니 꼭꼭 되었고 충무공에게
있던 칠백백사총에게 이사가니 꼭꼭 되었고
남원공 판서의 총도 같은 은혜를 보였고 전국
각처에 사신들이 왔는 일도 이와 같이 된 것은 천국
우물들이 꼭꼭 후는 소실 되었던 것이 오직 이 비문에
무사했는 것은 천국 후는 소실 되었던 것이 오직 이 비문에
이점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 전국 각지의 향교가 소실 되었으나
장수향교만이 무사하였는 까닭에 장수향교를
조본으로 복원한 역사적 사실이 된 것이 하필
이곳의 향교 팔살 침착하여 이 비문에 남아 있는 것은
그 후로 이 향교 소이하여 이고장 주일 여사가 총의
지시에 얼마나 투철하여 또 이 비석은 얼마나
아껴왔는가를 말하여 입증해 주는 사실이다.

또한 비석에 지상에 세워져서 많은 부인들이
물론이시 비석에 묻은 흙을 씻어낸 부인들은

다음은 들이다.

장수읍 장수리 2구 거주	김보령 할머니	(74세)
" " "	장복남 "	(70세)
" " "	김정순	(사망)
" " "	홍정양	(")

이분들의 많은 분들이 있었으나도 확실하지
못하며 거꾸로 못하니 심심한 일이다.

豎名碑閣 新築方事

수평비는 1942년 11월에 뉘엿뉘엿하게
1945년 8월 20일에 활활뉘엿고 상수음인
들은 비각을 짓고 비를 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945년 8월 21일에는 누구의 뉘엿뉘엿이
수많은 군중이 비석앞에 모였다.

60씨쯤 되는데는 두루 선장한 노인들이
군중을 지도하러가고, 한다.

한편은 제삼 세서는 오일승(吳日昇) 先
주와 한편은 상수음에 서서엔 이재순(李在淳)
선생님이러가고 많은 사람들은 활한다.

여하간 이편들의 지도에 의하여 군중은
각기 자립을 시작하러다.

4~5인의 목수는 판주상에 올라 재목을
내고 한쪽은 우뚝하며 다듬고 비석을
우뚝하며 리를 닦아 우선 비석을 세우고
다음날 비석은 세워졌다고 하며 비석의 소재지는
장수읍 장수리 19번 국도 도로변이다.

목수는 崔東葉씨가 수목목을 하였던
편이며 그분의 아들목수는 누구인지 확실하지
못하며 죄송하시도 기쁘지 못하다.

비석 신축에는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지지도 없이 자발적으로 역사를 매치점이
더없이 중요한 점이다.

이런일은 장수읍이 흔히 일어나는 장수
사람 마음의 발로인듯도 싶다.

지식이나 언행은 보아 오직 세 사변의 변화에
일대시 응용을 보아도 역시 보아 보아
그런 것을 알 수 있다.

삼철이 그대하고서 사의(四義)가 그대하고서
동수(動數)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보아 보아
수간(水間) 사변(四邊)의 지각(知覺)에 상수(상수)에
모든 변화(變化)를 일대(一)의 작용(作用)에 의한
마음(心)의 변화(變化), 서로(二)의 변화(變化)에 의한
적(積) 소행(小行)에 나타난다.

이러한 마음(心)들이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마음(心)들이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총심(總心)으로 승화(昇化)하여 이고(二)를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태고(太古) 순풍(順風) 민심(民心) 고(古) (太古順風民心古) 이라

하겠는지 모른다.

이점만은 어느 고장도 이고장을 능가
할수 없으리라.

이 고장의 인공로치는 난선직차도 없으며
강상 쇠인도 없으며 오직 통.의.지의
고장임을 누구도 부인 못할것이다.

義岩朱諭介娘生長郷事蹟不忘碑

이 碑石은 義岩朱諭介님의 宇卒충정을 郷里
後人에게 길이 傳해고서 義岩出生마은 長水郡
溪內面 45리 朱村마은 入口에 各과 各의를
세웠나.

碑石을 세운 日은 1960年 12月이다.

此 記錄해고서 알아야 할일이 有나면 義岩의
相對 敵將의 功勳을 立花宗茂와
鐫刻된 事이다.

相對 敵將의 立花宗茂라는 刻은 잘못된 것이나
後日 이일로 시기가 有나고 有나서 記錄해고서
오해 有나지 마라.

論 介 의 碑

이 碑石은 진주 축석루 西편의 3기사
정원에 있다.

축석루에 西望하는 廣은 사당터에
남쪽에서 2칸 3칸을 차지한다 할 것이다.

이 碑石은 진주서 女學生들이 中心이 되어
모은 功을 記하는 功績 碑이다.

설창수 先生의 功을 記하고 功
신생의 功을 記했다.

義岩朱論介像

이 동상은 1980年 9月 韓城사 社長
씨랑 주씨가 제공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우측에는
충무공상이 있고 좌측에는 의암상이 세워진 점이다

같은 시대 같은 개념의 동상들이며 勇文
정신을 이룬 정승들이란 점에 의해서 더욱
무량한 화를 얻었다

義岩朱論介유머비

이 碑石은 現朱村國民學校 北便 鎭원내에
 세워진 現代式 碑石이다.

이 碑石은 義岩朱論介의 生家에 立혀진 碑石이다.
 是한 碑石이다.

碑石 後面에 刻은 文字는 義岩朱論介의 生家에 立혀진 碑石이다.
 是한 碑石이다.

立碑 是한 碑石은 文公部에 補助하여 碑文은

當時 長水郡守 박창중씨에 碑文은 是한 碑石은

當時 長水警察署長 한대익씨다.

의암사건첩

의암사당 건립 발기회

1942년 11월 하순에 일제에 의하여 떠돌게 되어 2년
 10개월간 지하에 묻혔다가 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
 과 더불어 광명을 찾았으나 1950년 공산당 권력은 수평비
 에 또한번 수난기가 되었다 관청도 허지 앞은 비카는
 창수북쪽 구도 19번 도로변에 위치하여 10년을 지냈다
 1954년 3월에 주민 여론에 의하여 의암사 건립추진

발기회가 소집 되었다
 발기회원 명단

창수군수	홍 석 모	(洪 錫 模)
창수경찰서장	김 정 두	(金 正 得)
창수군교육장	김 상 근	(金 相 根)
유 시	조 주 환	(曹 周 煥)

유지

양종호 (家)

5인이 위암사 전립선 결의하였다

장수 위암사적 보존 기성회 결성

1954년 10월에 장수위암 사적보존 기성회가 창립으로

발족되었다 사업내용은 우선 수명비각을 장수읍 장수리

4구 번지 대로변에 이전하여 장수읍 관산에 위암

사당을 신축하여 영정을 봉안하고 매년 7월 7일 위암

제사일에 제사를 모시도록 주선하며 위암사적을 조사발굴

하며 충신의 얼을 위로하고 많은 사림들에게 장신적자주

로서 아음의 지율이 되도록 홍보할것을 결의 하였다

동계행 회가 중심이 되어 사업 추진 하여 동년 동월 19일에

위암사 신축공사는 시작되었고 다음과 같이 역원이 구성되었다

會長
副會長

李
曹

宗
周

鉉
煥

沃淳

球叔錫團美勇巨思誠植俊

文在

鍾重昌鍾炯順元程龍炳仁

金李

金黃韓洪金賓金柳韓金鄭

浩

浩根淳

伊學和成國順浩均政斐道

鍾

允相明

凡義龍岩命多明尚裁寅淳

梁

金金吳

嚴李李崔桂崔金鄭金柳柳

副會長

顧問

常任理事

常任理事	柳李柳張	淳熙東球	亨鎮杓鉉	張賓李林	東長根吉	吳玉用洙
常任幹事	李	在	澤			
影頰畫師	金	殷	鎬			
建築都片手	崔	東	燦			
別工片手	宋	福	東			
丹青首畫師	李	相	吉			

의암 사광 준공

총수음수구 번지 대로변으로 수명 비각이 아천
 되었으며 총수음 두산의산 번지에는 아광환
 영적각이 신축되었고 영정각에는 김은호 화백이
 그린 의암 초상화가 봉안 되었과 이로써 의암사당

은 전주축석루 경계에 있는 義娘祠 와함하여
두개의 사당과 3개의 비각 4개의 비석이 건립
되었다 의암사당 남쪽 상원 언덕 변에는 의암사당
판공인 집도 3칸이 바뀐되어 판공인이 상주하며
사당을 판공하였다 의암재사는 음력 7월 7일 본채
재사당을 기하여 주연의 회수와 약간의 군(郡)
비로 조흔하게 재수를 준비하여 군수가 재
되고 유치 및 주연이 모여 흥화를 이어오다가 19년
후에 의암재와 아울러 충수군민의 관행사를 동시에
비로써 군조로 흥하고 재물은 의암의 탄신일을
축하여 음력 9월 9일로 절정하였다 매년 9월 9일을
제일로 정하고 아울러 충수군민 갈로 정하여 각종문화

행사를 취소한중 1981년 파견출발여(음) 9월3일
아생일임을 재확인하고 제때 행사 취소도 그분의
찬성년월일 로 할것 제선9월 회의서 결의하고
구조례를 고쳐 재정 하였다

義岩祠 題詞 賜額

義岩이란 賜號는 1722년에 세워진 전주 남강변에 의기봉계지은이란 旌門안에 "義岩事蹟碑銘"이란 비석이 서있는데 이 碑石은 當時 觀察使 李 訥의 手記에 依하여 賜額된 義岩 賜號에 관한 비석이다. 조사자는 碑石의 危岩의 事蹟을 말한 碑石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는 證不成說인듯 하다. 하여간 王國 民國에 있어서 主權 統治者의 號稱이 다르며 三權을 장악하고 다스린 것이 또 이라면 大統領은 民衆으로부터 다스릴 權을 授受받아 다스리는 것이 다른 것이다. 또 이 내린 사료가 사적이요 大統領이 내린 사료가 實事라면 당연히 하사가 되어야겠지만 古蹟 앞에 하사한 용어가 어울리지 아니하여 사적으로 號額하니 옳지 않기 때문이다.

1954년 長水 義岩 朱 紳介 사위
기성회는 생장량수영 비자를 개축 이전하고
영정자를 지어 영정을 봉안하고 이 영정자를
義岩祠로 영영해 줄것을 政府에 진의 하였는데
이 진의에 앞장선 자가 當時 이 고장 대변인이었던
鄭 準模 박사였으며 이 件意 사안을 이 승안
대통령께서 總統令에 위임하여 한 태영 부
통령께서 친필 賜額 하였다. 이 件은 서울에서
장수까지 운반하는 李文石 先生이였다.

수영비가 2년 10개월 동안 地下에 묻혔다가 다시
세상을 볼때 물로 碑石을 씻은 분증 한 분인
黃 正養 할머니는 李文石 先生의 先妣되시는
분이다. 아무튼 長水에 있는 義岩祠는 大韓
民國 政府로부터 정식 이름을 받았고 인형 받은
사당임을 알리 든다.

의암사당 성역화 사업

당초 의암사당 건립에는 국가의 경제력은 지방문화 재를 들볼 힘이 없고 공산군 편여 무리가 입산하여살인 방화를 계속하기 능.공.상.간.에 생산 및 유통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 그 당시를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1954년에는 아직 공비가 출몰하여 장수읍 주위에는 3.300V의 전기 철조망을 치고살때 마음은 있어도 훌륭한 사당을 지을 힘이 없었다 1970년대를 넘어가면서 우리생활은 안정이 됨에 따라 의암사당을 이전 개축성역화 한다는 당시 일반 주민의 한결같은 소망이 있었으므로 중앙과 도.군 행정당국은 동사업을 검토하였다 1972년에 한국일보는 소설 논개란 제목으로 의암 역사를 담은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이소설은 의암을 완전히 불탄의 여승으로 인정한 내용을 담으며 연재하여 갔다

나중에 부끄러움을 씻고 삼천의 원수를 초음으로써
천민족 봉기의 화신에게 이빨수가 있느냐고 창수군민
은치를 떨며 함성을 질렀다 소설 논객의 작가 정모는
고려대학교 국문학 교수였다 일종의 명문대학교 교수가
그런데 무례한 처사는 작가로서 창작의 자유와 독창의 세계
를 인정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지식인은 창작세계
에서든 재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따 먼저 읽어선분 아삼히
오치환 선생님 이따 삼히 선생의 귀를 따라 가신 것이다
작가 위압 역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직접 행동으로 옮겨
된 동기가 되었다 상정하여 정모를 상편한 삼히 선생은
민족 정신의 포본이 될 충신의 일화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느냐고 말하고 소설 논객의 연계를 즉각 증명할 것이며
천민족 앞에 사죄하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한편 재경
재선 장수인 재황 장수인은 대법원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며 장수출신 전정주 변호사는 자기가 무덤 없이
받아 제소할 움직임은 보여왔다 이에 황황한 소설논객의
작가는 연세 30회를 넘지 못하고 중저하고 연소동이 벌어
졌다 여기에 8만 장수군민과 정향 각지의 장수출신 처사
인들은 의암역사를 연구개발하여 정론을 정립하고 정사에
기록하지 않는 한 또 어떤 무례한에 의해서 치욕을 당할지
모르다는 소리가 높아졌다 의암사적보존과 또다른중의와
문화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군민 단체가 필요함을 느
삼해선생은 사적보존 위원회 결성에 나섰다 장수는 물론
서울. 광주. 전주 등지에서 자진 사적보존 위원회에 입회하겠
다는 장수인 500명의 입회신청을 받고 등기위원회는 추진
5개월만인 6월 하순에 결성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등
위원회는 10시에 결성하고 13시에 해산하는데 이르렀 으기
이유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정척적 실마리에 열키어 돌아가는 무리
들의 소치였으니 비홍활일이 아닐수 없다 이런 불쾌한
생각마저 하고 싶지 않으나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경계하여 기록해둔다 앞서 밝혔던 소설
논개의 소동과 10시에 결성하고 13시에 해산 해야 하
였던 위암사적보존 위원회 해산은 천장수인과 차수민들
의 바람이 오히려 원인으로 변하였다 등 영역화 사업은
이러하고 결심한 창수군수 김준수(金準洙)씨는
1973년 4월에 각읍면의 유서 기관체 대표 각 기관대표 등
200여명의 준면대회를 소집하였다 등대회의 위세는 위암
사당은 광위에서 영역화를 할것인가? 세타를 선정
하여 사당을 이전하고

성역화 할 것인가? 하는 의제였다

현위치는 협소하므로 새위치를 선정하여 성역하는
의견으로 일치를 보고 새위치의 선정의 의문을 남긴 채
해산하였다 동년 9월 의암지 제천 위원회 소집에서
사당 이전 문제는 제론 되었다. 이때에 3안이 나왔고
1안은 공위치를 확대 성역화 하자는 안이며 2안은
창수읍 노회리숲 부근으로 이전 하자는 안이며 3안은
높고 창시간 창론을 벌였으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해산
하였다 동년 11월 3차 주민회의는 소집 되었으나 창창
시시간의 창논 끝에 3안 중 안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채 해산하였다 동년은 어느 의견도 마무리
를 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1974년에 창수군

당국은 사당 이전 비로 국비 100 만원과 군비 100 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위치선정의 군면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2인하는 나머지 동년 4월 5월 6월 6차 군면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의견 일치는 보지 못했다 동년 9월 위암계전 위원회에서 현사당 위치여 이전할 의견 일치를 보고 동년 9월 6일에 사당 이전 승인 신청서를 문공부에 발송하였으며 동 9월 20일에 이전 승인이 났다 동 9월 28일 이전공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동년 10월 29일 설계서가 승인 났다 11월 23일에야 역사적인 이전공사 기준공 되었다 사당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산 3번지 면적은 8566 평이다

1956년 처음 사당을 건립하고 (10월 3일)

영정을 봉안한지 19년만에 영원히 향후를
받을 이곳으로 이천 되었다

의암제 행사

의암제행사는 이고창 주민의 원년중가장 큰
명절이 되었다 의암제 10일을 앞당겨서 시내 곳곳
에는 축 의암제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주민은 시가
지를 정결하게 청소하며 마음으로 외곽객에게 안배를
준비를 하고 작업소의 종업원에 자지 친절이 미력
이라는 교육을 시키고 의암제 전날에는 전야제가 있어
온 시가지는 등불을 걸고 중.고등학교 여학생과 처녀
빛 춤은 여학생 수천명이 손에 꽃등을 들고 제각기
우리고유의 의복을 입고 불꽃놀이 행렬은 꽃속에
꽃이 핀 듯한 절경을 이루고 밤을 지새운 뒤 행사 당일
에는 수천의 군중이 운집하여 제사의 사회자 명에 따라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 후에는 농악놀이 명창대회
미녀의 논개 뽑기 각종예술 행사를

비롯하여 씨름 놀파리기 축구 배구 바둑 등 각
경기를 하며 1읍 6개편의 6만군민이 이날
하루만은 총화를 이룬 군민마축제의 날인
것이다

700 그루 郡民植樹事業

義岩祠堂 敷地에는 本來 공동묘지였던 伽藍에
분묘 수천장을 이장하였으며 나무하나없는 曠은산이었다.

6,000 坪 植地에 7,000 그루 나무를 심는 計劃은
어느 時에나 보던 나무 實식이 아닌가 하는 生覺이
들뿐한 일이나 曠은산이 보기 싫어 하루속히 푸른산을
원하는 8萬 郡民의 夢이였다

조경 實務委員會를 構成하여 전문가 7人을 委촉
하였다. 오치환, 옥동기, 이종선 (당시 長溪林高교수)
한승래, 신림과장, 김상득, 우기열등이였으며 조경
推進委員會를 構成 委員長 郡守 장철하의
18名의 委員을 委촉하였고 거사 3名 김명철,
한종수, 이승희씨등에 副委員長을 委촉하였으며 代議員
7名 한승래, 양형석, 장득현, 한원희, 우병용, 김병근,
김득봉씨등에게 副委員長을 委촉하였으며 郡民大會를
소집하여 현수부, 굴취부, 특수부, 매입부 4부

積極推進할것을 決意하였으며 各畝를 畝수별로
各邑區에 分配하였다.

한편 各邑區 總務係長會議를 열어 各畝의 畝數와
畝數 및 畝수畝數를 各畝 示達하였다.

한편 畝수부 畝數 식지 지도반을 組織하였다.

指導班은 一般人 6名, 長溪林高生 40名, 전문기술
4名을 組織하여 各邑區 畝數에 對하여 技術的인
問題를 指導하였다.

한편 畝數의 성우 畝數에 對하여 畝수가 不十分하게 되므로
長水中, 高校學生과 長水再建學生에게 協助을 要請하였다.

1974年 3月 18日에 時作한 植樹作業은 同年 5月
10日까지 50日間 계속되어 2,000畝 計劃에 對
本 実績을 올렸으며 長水中, 高校學生과 長水
再建學校學生: 畝수 作業에 動員 10余回에 延人員
3,000余名이 動員되었고, 특히 畝數는 長水郡 溪內區
長溪里 358-8番地 附近 徐成基씨는 10年生

작나무 300 책을 현수하였다

後에 안익태가 이 책은 故郷에 長水가 아닌
조선이래로 들렸다.

정말 그 마음을 느끼며 이고장 出身이면서 나무

한그루 심어 주는 무리들이 있으니 그 人格은

세이리들이 어떻게 評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관한이 말기다.

죽비땃지방비 천만원 사당보수사업

1975년에 도비. 군비. 죽비 포함 천만원을 확보 사당
보수사업이 시작 되었다 사업 내용은 외산문과 내산문
전축비와 부지정리 합총 78M 전축비이다 등 예산과
사당 이전의 배후힘은 국회문공이었던 국회위원
최성석(崔成石)의 힘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라 생각되며
이분의 공이 컸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알며 최위원을
움켜잡을 수 있도록 후원 하였던 안종수(安宗秀) 당시 K.B.S.
전주방송국 기자에게도 큰 공을 소개 하며 고마운 분들
임을 알아야 한다 1975년 음9월9일 이날의 밤 재전은
새로 이전하여 지어진 사당은 그전 때로 사당 규모를 갖추
었고 사당 광장에서 수천군민이 운집한 가운데 제사와
각종 문화 행사를 하였다

사당은 영정각 1층 외산문과 내산문 비각 1층

관리사무소 1등으로 아담한 사당이 되었으며 주위
에는 준만식수 6900주가 90% 이상 성공하여 보기도
좋으려니와 특이한 점은 각마을에서 산에 들어가 굴켜
하였던 나무가 살았는가 확인해본 일은 실로 보 کم
있는 일중에 하나였다 수량성역화 사업은 년차적으로
추진 되었고 76년에 천만원이 투입되었고 77년에
천만원 78년에 300만원 79년에 1700만원 80년에 400
만원 81년에 1500만원 82년에 1000만원 위암 생장치
유해비 전립선 등 400만원은 생장치 드로 확장 등 900만원은
은 사당 화장 산책 및 배수로 신설 등 2,000여 만원은
투입하여 사당과 생장치 면모를 그런대로 유지케
하였다

大東奇聞 卷二 宣祖朝 五十三

論介抱將於峭岩

牧使徐元禮倡義使金千鎰所領
兵幾至又萬比前十倍 人皆謂守城無慮

論介獨憂千鎰問其申前則兵雖小
將相愛弓出一此為得勝之本今雖兵如
軍無統率將不知兵是為憂千鎰以

為妖言欲斬在右勸解得止及城陷

軍民將校盡被屠戮論介凝粧盛服

立壘石樓下峭岩之巔敵將見而弭之

論介抱腰投彈後日名其岩曰義妓岩

之祠樓傍每年春秋羣妓會集而祀之

대동거문 2권 신조조 53

은계 초암에서 장수를 껴안다
무사 서 천여와 천여사 김 천월이 흥술한
대군은 6만명 이었으므로 이천 김 사면
장군께 비하면 10 배다. 사람마다 상을
지키는데 걱정하지 않았다. 오직 의암만이
근심하니 천월이 물어 부인은 무슨 연고로
걱정 하십니까 하니 전에 김 사면 장군의
승전 때는 군 관 명이 서로 아끼며 상이
영을 내리던 아뢰에서 여차 일차함을 주셨는데
금일은 군대에는 통솔이 되지않아 장수는 사졸의
어려움을 모르고 사졸은 장수의 명예 북종치
아니하니 근심이 되어 그림자다. 천월이 화를
내어 무슨 요인을 하느냐 하니 주위에 부인의
딸이 사살이라 제지 하였다. 후일 상이 함락

되어 적군에게 구완민이 주축을 당하니
의암 부인은 처상성복하고 의암상에서 의상과
함께 그 허리를 안고 함강에 떨어져 죽었다
후에 사림들이 추위추 아래에 사당을 세우고
해마다 많은 거행들이 봄 가을에 모여 제사를
지낸다.

호남 설의록 (湖南節義錄)은 조서각
구입을 못하여 그 내용을 기록치 못하나
후일 구입하여 記入한 데로 이 보고서에서
삼습 할 것이다. 突 治 滄 보관중임.

湖南誌 忠義章

長水 論介 本縣官妓 晉卅兵使
崔慶會之所愛也 壬亂 隨崔公 殉節
敵設安于 蠹石樓 論往挑 其歡乘彼
醉昏 把投樓下 南江而死 建祠命 旌自
官 每年 致祭

장수 은채는 장수 판기 인태 선주병사 최
경회를 사랑 하엿는데 성이 함락되고 최공이
순절하고 적군이 추위우 잔치를 하는데 가서
그들을 환영 하는듯 하고 직장이 대치하여
흔미한 틈을 타서 무를 꺼안고 추위우 함성
에 쫓아서 죽으니 조정에서 명장을 하사하고
사당을 세워 해마다 제사를 모신다.

長水誌 乾券 蘇義章

義妓 論介 任內 百楓川人 忠毅 崔公 莅本縣時所
聘也 崔公 晉州 兵使 當壬辰之亂 論介 隨 趙 域 墮
籃 柱 處 誘敵將 斗舞於 南江 危岩之上 因以 同
墜而死 後人 鑄岩曰 義妓岩 立祠 江上 祭之

의암 논계는 제비편 풍천 사림이여 최몽
장수 현장씨 알았는대 임진왜란은 흥해에 전주
병사로 임명되니 동거하여 심이 함락되니
적장을 쫓아 의암우애시 충을 추우 적장을
향고 같이 떨어져 죽으니 그 바위를
의암이여 하고 사당을 세우 강상네시
제사 제비는 구누.

東鑑欄目第十八下卷已章

倭隨 晋州兵使 崔慶會 侶義使 金千鎰

復讎將 高從厚死之

忠淸兵使 黃進牧使 張潤 崔慶會 愛妾

論介 抱投 倭將 南江而死 忠烈之女也

왜군 전주성을 함락하고 병사 최경희
황복사 김천일 부수장 고종후등 죄장이
전사하고 목사 장윤도 함께 죽으니
최경희의 첩 은개는 왜장을 안고
남강에 죽으니 충과 열을 다한 여자라.

月岡祠 實錄

忠毅公 日休堂 崔先事蹟 實錄

昔在 壬辰公 募聚義旅 輟 闕于 錦山
茂州. 全州. 南原 有連 捷 越 逐 進 矣
過長水 長水會以 遺愛之 民牛酒仰勞
越過 壘石義妓 生長村 楓川而 義妓
論介

옛날 임진년에 최상군이 의병을 모아
금산. 무주등처에서 연전연승하고 장수를
사냥하여 잠간까지 장수백성이 주먹을
베려는 위로 베풀었는데 축적 의사가 자란
바람 풍천에 머무른 즈음에 그가
바로 의거 郎 "論介"라.

義岩率蹟碑銘內의 各詩.

獨峭其岩 特立其女. 그 바위 홀로 솟아 있고
그 여자 특별히 서 있구나.

女非斯岩 焉得死所. 그 여자 이 바위 아니면
어찌 죽을 곳을 얻었을까.

岩非斯女 焉得義聲. 그 바위는 그 여자가 아니
면 어찌 의로운 소리를 얻었으리

一江孤岩 蕩公芳名. 한 강에 외로운 바위가
만년에 꽃다운 이름을 남겼구나.

남강 변에 서 있는 의거 큰개 지문 內에 세워진
바위에 새겨진 한 시이다. 강변에 우뚝 서있는
바위가 있었기에 의암이 출생할 수가 있었고 의암
이 충성 하였기에. 바위는 의로운 이름을 천만년에
전할 수 있었다는 훌륭한 시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부끄러운 성열은 사랑보다 강하다.

아 ----

강낭콩 꽃 보라 리푸른 그물결 위에

양귀비 꽃 보라 리붉은 그마음 흘러라.

이詩는 수주 변 영로 (樹洲卞榮魯)

선생의 詩이다.

詩人墨客들 執筆一端

形勝南卍第一邑 경치가 좋기로 삼주에 제일인데

義娥遺蹟此幻峯

의랑의 업전현적이 물가에 남아있네

千年哀怨江波咽

천년의 슬픔베틀한 천천 강물도 흐르고

萬古芳名石面留

만고의 고운이름 후상에 머물렀네

寂寂孤城雲鎖峽

고요하고 고요한 외로운 성

구름속에 잠겨 있고

蕭蕭 陸葉月籠秋

쓸쓸히 지는 낙엽은 가을달속에

잠겨 있고

臨風最是復心雷

바람 흔들려도 이마음앞은 지고

旧曲依稀泣度頭

옛가락 아물아물 감머리에 눈물짓네

작가는 정 무 (鄭弼) 1664년 출생 1719년에

죽소에사 (蕭所) 죽은 분이다. 이 시는 의암의

忠孝烈을 찬양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참 인간의
 주름 지쳐없이 흐르는 강물 쓸쓸히 지는 낙엽
 대자연의 모든 생사도 영취의 현상도 모두가
 의암의 꽃다운 청춘의 주름을 대변할 듯한
 가슴아픈 정경을 읊은 한 많은 노래이다.

楓川度口水極查

풍천도수 물마저 향기롭구나.

翟我鬚眉拜義娘

나 여기 세수하고 의랑에게 절하노라

蕙質何由能殺威

연약한 자질로 능히 주일 귀염이 뵈리라

策疏已自使歸行

남편도 이미 의병대열에 나섰는데

長溪父老誇鄉產

장계노인 고향사람이라 자랑하고

直石丹青祭國魂

추위 안렴은 나라의 슬픔을 제사지내고

追想椽陵人 拘盛

돌이켜 생각하니 강리에 안뜰도 많았는대

千秋妓籍一輝光

오리려 천주거취에 빛이 오래
자속될 것이다.

황 현 (黃炫) 先生은 全羅南道 光陽

출신이며 구례로 이거 하였고 1885년에 생원시

(生員試)에 장원 하였으나 1910년에 한일

합방의 나츠의 비운을 통탄하고 절명시

(絶命詩) 4편을 남기고 음독 자살한 우주지사

이다. 시의 대의는 의암이 낳린 풍천 등주

에는 물도 향기롭게 느껴지며 자기 스스로 의암

앞에 세수하고 절하며 특히 강가에 영남 지방에

인물이 많았지만 이분만큼 훌륭한 분은 없으신

느낌을 말하며 거취에 기록된 애절한 이름은 천년

만년 빛날 것이다. 우주 지사의 마음은 그후

의암 충심에 감복한 노래이다.

모곡촌 육조 (毛谷村 又助)란 누구인가.

모곡촌 육조는 일본 조산시대 (日本 桃山時代)의
경객 (劍客)이었다 한다.

모곡촌 육조는 흥선유가현 모곡촌 (興前 佑賀縣
毛谷村)에서 태어났으며 대분군산주 릉 일목
(大分郡山國町日木)에서 자랐으며 晩年生活
을 하였고 대분현 영안관 권현산신 (大分縣英
彦山 権現山神)에 기도하여 차력술을 할 수
있는 무사였다.

어느날 영주앞에서 사관시험이 있었다. 이 시험
에서 최후의 승자가 사관 시험에 합격되는 중대한
시험이었다. 그의 대학할 상대 무사가 찾아와
내가 무예가 너만 못하니 이번 시험에서 너한테
리는 것은 이미 아는 일이다. 나는 평생 사관이
될수 없으니 이번에는 나한테 거짓으로 해주고

너는 다음 기회에 사관이 되어라 하자 그는 흔쾌히
응락하고 약속대로 하였다. 물론 상대는 사관이
되었다. 어느날 어린 소녀가 찾아와 애원하기를
무도한 무사가 자기 아버지와 동행까지 죽여서
집이 망하였는데 원수를 갚아 달라고 애원하자
그는 흔쾌히 응하고 소녀가 인도하는 대로 가보니
천에 자기를 찾아와서 애원하던 바로 그 무사
였다. 이 비열한 능이 너는 무사의 간척이
없는 능이라 꾸짖으니 뒤우친 빛이 없으므로 그를
죽여 버렸다. 그는 살인자로 죄인이 되었다.

사실 님은 끝에 무죄 처방과 더불어 으리려 사관
이 되었다. 그의 무예는 세상에 알려졌다.

종신수감의 출병 계획에 의해 가등정정이 무사를
모으는 때였다. 가등정정은 풍문에 들은 모국촌
축조를 불러서 자기 부하로 삼고 900 석 부자

영지를 (領地) 영유케 하였다. 900 석 무지를
영유할 수 있는 무사라면 가등칭칭의 24 무인중
에 삼위에 속하는 무인이리 한다.

1592년 흥신수길 조선 출병시 가등칭칭의
군에 속해 출병한 것이 분명하여 출병후 곳곳
에서 공을 세워 가등칭칭의 신임이 두터웠다.
하니 당시 요새지로 알았던 진주성 자웅에
그를 투입했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전후 일본
전사에는 그를 일본 무사의 체면을 손상시켰다 하여
전사에서 제명되어 野人의 대우를 받는
불행한 무사라 한다. 등 재로는 진주시 다적
연주반에 의해 모욕촌 육조의 유기 (緣起) 전사본
1716년 숙종 24년에 기록된 것을 참조했다.
한편 진주 농대 김 상조 교수의 말을 빌리면
주년전에 모욕촌 육조의 후손이 진주에 와서 南江의

혹을 채집하여 조흔하여 갖다고 한다.

모쿠촌 육조의 초상화.

최근 일본 상문에 보도된 모쿠촌 육조의 초상화는
하모리 산쿠형 모쿠촌 민가에서 발견되었는데 초상화
를 소재 하는 내용으로 보아 모쿠촌 육조의 누기에서
말하는 지명과 제반 여건이 동일하며 등자구 존상
양평사의 (村上良平寺) 12대 持佐가 그려서
보존되었던 것이 그려서 소재되고 민가에서 발견된 사
실은 그 그림이 모쿠촌의 실물 초상화 인것은 물론이고
그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 해 주며 그 지역 주민들이
현재까지 그를 영웅으로 추앙하여 차르셔 공양하며
추모하는 충심이 대단히 생황하다고 말한 점과 그
별명이 무전손 병위(末田孫兵衛)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실존인물임에는 틀림 없는 듯 하다.
당시 지역 사정관 정도가 틀림이 없는 듯 하다.

毛谷村六助の肖像画

山国町の民家で発見



田孫兵衛

毛谷村六助 (別名・木田孫兵衛) の肖像画

地元に伝わる戦国時代の豪傑

山国町民家の民家で発見された肖像画は、戦国時代の豪傑・毛谷村六助の肖像画と見られる。六助は、別名・木田孫兵衛と称し、山国町に伝わる戦国時代の豪傑として知られている。この肖像画は、六助の姿を写し留めたもので、その背景には、山国町の歴史や文化が反映されている。発見された場所は、山国町の民家であり、その発見は、山国町の歴史をさらに深く知る手がかりとなる。肖像画の発見は、山国町の歴史をさらに深く知る手がかりとなる。肖像画の発見は、山国町の歴史をさらに深く知る手がかりとなる。

明治時代に住居した
 毛谷村六助の肖像画は、山国町の民家で発見された。この肖像画は、六助の姿を写し留めたもので、その背景には、山国町の歴史や文化が反映されている。発見された場所は、山国町の民家であり、その発見は、山国町の歴史をさらに深く知る手がかりとなる。肖像画の発見は、山国町の歴史をさらに深く知る手がかりとなる。肖像画の発見は、山国町の歴史をさらに深く知る手がかりとなる。

山国町の民家で発見された肖像画は、戦国時代の豪傑・毛谷村六助の肖像画と見られる。六助は、別名・木田孫兵衛と称し、山国町に伝わる戦国時代の豪傑として知られている。この肖像画は、六助の姿を写し留めたもので、その背景には、山国町の歴史や文化が反映されている。発見された場所は、山国町の民家であり、その発見は、山国町の歴史をさらに深く知る手がかりとなる。肖像画の発見は、山国町の歴史をさらに深く知る手がかりとなる。肖像画の発見は、山国町の歴史をさらに深く知る手がかりとなる。

山国町の民家で発見された肖像画は、戦国時代の豪傑・毛谷村六助の肖像画と見られる。六助は、別名・木田孫兵衛と称し、山国町に伝わる戦国時代の豪傑として知られている。この肖像画は、六助の姿を写し留めたもので、その背景には、山国町の歴史や文化が反映されている。発見された場所は、山国町の民家であり、その発見は、山国町の歴史をさらに深く知る手がかりとなる。肖像画の発見は、山国町の歴史をさらに深く知る手がかりとなる。肖像画の発見は、山国町の歴史をさらに深く知る手がかりとなる。

県が初の

無医地区全国

祠堂宅地評

高樹頂上에 穴星端靖하니 秋蟬嘲林이 可知斗
前有人公斗고 後有馬山이라 木火相生 康貞尅祖豆
樓下開帳이라 起伏連疊에 忽大忽小斗
穿帳過峽斗고 曲曲活動이라
心中出脉斗고 到頭一節이라
尖圍方正하니 穴星特起斗
龍砂虎砂는 重重環抱斗고
外山外水가 層層護衛斗고 水如玉帶니
可知大地斗. 生旺之勢가 墓庫停蓄斗니
學堂之水斗. 貴人之祠 可知斗
忽出巽山斗니 大尅女貴斗
乾山晝滿斗니 大昌大富斗
震山大肥斗니 多子多孫斗고 坤山聚氣斗
食福年年斗고 好好明堂이고
千芳香花豆子斗.

사당 집터를 말하면

높은 나무위에 단정히 혈이 맺혔으니 가을 때미
가 깊은 호수에서 노는 형상이며 앞에는 팔공산
이 있어 무성으로 보이며 뒤에는 마산. 화산이
조산이 되었으니 무화 상생이라. 겨울을 이루고
있으며 천래 명당의 뒤에는 반드시 화체의
^{산이} 있어야 된다는 데 이를 염정 (廉貞) 발조하며
개장 (開張)이라 함은 각을 벌인것을 말함이며
기부 언척이라 함은 산이 솟구치고 가라앉음을
말 함이며 와첩이라 함은 산이 가다가 머물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옥곡 활도라 함은 산이
말이 살아서 기어가는 침승처럼 보인것을 말
하며 심중 출맥이라 함은 산이 분명하게 힘이
접설 된듯. 형태를 말하며 도두 일현이라 함은

마지막 짝을 정하기 위하여 힘주것을
말함이며 첩위 방선은 열쳐주위가 모가
진듯하며 단정한 것을 말하고 열성의 투기는
당처가 분명하게 나란한것을 말하며
용사 호사는 좌칭 우백호를 말하고
중중 환조라 함은 거듭 거듭 쌓였음을 말
함이며 외산 외수는 밖에 산과 물을 말
함이며 증증호위라 함은 여러개가 들어있음을
말함이며 수여우대라 함은 물이 쉼이 있었음을
말함이며 가이대지라 함은 근역인것을 알겠
다는 말이며 생왕지세라 함은 생처와 왕처
기세를 말함이며 모고성추은 기세가 물이
틀어야 할곳에 고여 있음을 말하고 이원형태를
가리켜 화당지수라고 말함이며 이원 경우를
가리켜 여한 집착나. 사당지가 된다는 말이며

흙출 손산은 등남간 산인데 이 방향의
산이 높으면 여사정이 부켜 한다는 말이며
대밭대키는 크게 밭부하고 크게 키한다는
말이며 전산이 웅만은 서북간 산인데
웅만하면 크게 창성하고 크게 키하게 된다는
말이며 전산대비는 등쪽산이 크고 비대한다는
말이며 이 방향의 산이 크고 비대하면 아들이
많고 손자도 많다는 뜻이고 곤산책기는 서남간
산이 험을 침설한다는 말이며 이런 경우는
재물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으므로 언제나 재물이
쌓인다는 말이며 이런 까닭에 좋고 좋은 명당이다.
천년이나 만년이다. 세사를 모시고 모든 행사를 할
것이다. 라는 도참학적 정론자의 의견이다. 그런데
도참학적 정론이 비과학적이라 우스울지 모르나,
조사하는 많은 사람이나 사당이나 서천등의 위치를

보면 중요하고 화려하고 단정 한 데는 반드시
오래 유지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우선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오래 유지 못한 것을 많이 보았다.

그러므로 옛 사림들이 사당이나 서원이나 사찰을
지을 때 반드시 터를 가려 지은 것은 비과학적이라
고 우습게 생각할 일도 아닐 줄 안다.

義岩墓所

1972년 2월에 소실 논개 파문 소동에 장수군민은 의암 역사에 대한 심한 자괴의 감과 삼허 오처황(吳 洽 滄) 선생은 의암 사적보존 위원회 결성 추진작업을 하면서 아울러 묘소 발전 작업도 시작 하였다. 1972년 3월 하순에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방지리 일대를 주소문 하였다. 동년 4월에 현지를 답사 하였다. 동년 9~10월 양월에 5회 답사 하였으며 73~74~75년 14~15회를 답사하여 묘소를 발전하고 76년에 경남 화순 경남 진주 등의 사적 고증과 여러 추정등을 고쳐하여 이상의 없음을 완성 묘소 이상 계획을 군당구에 세출 하였으며 당시 군민의 의전과 군당구의 지원으로 이상 계획은 1976년으로 이월 동년에 장수군청에서 등 묘소 아원승인

신청을 문공부에 제출하였으나 문공부 회의
결과부도와 경상남도가 상의 하라는 내용이였다
접촉도 없이 경상에서 문화계 선문위원들
사실을 고증하고 회의 모습 상역화 사업을 문공
부에 신청 확정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우리 고향에서는 회의 불합의 한이 되었다.

義岩 부인은 妓生 이었는가?

義岩 부인이 妓生이나 妓生이 아니라 하는 문제는 누구도 성의를 내리지 자꾸씩 어려운 문제이다. 그 문제 업적이나 有蹟 및 史蹟에는 妓生이라 記錄 되었으나 成長地의 口伝은 분명히 妓生이 아닌 良家의 貞潔한 부인이라 전해지 두개의 相反된 의견이 하나로 성립되거든 큰 문제인것은 사실이나 楮鰐의 乙卯사후를 조사하는 동안 妓生이 아니었구나 하는 確證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 기록하여 본다. 각 문헌에 長水官妓였다는 문헌이 있거든면 普冊名妓였다는 문헌도 있다. 또한 姓도 없이 그저 諭介라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韓國人치고 諭介라는 이름이 어디있으며 저나 妓名치고 흔하게는 妓名를 어디에서 보았던 말인가. 이 이름은 반드시 兒名이었을 것이다. 1593년 7월 7일 저인이 전주성을

합격하고 승선연회를 배웠다고 전한다. 이때에
서인들이 한국여성을 보는 관점은 대략히 위엄스러운
주체로 보았을 것이다. 그들이 1년동안 韓國各地
에서 女子만 보면 갖은 심혈행거를 하였을 것이다.
그때마다. 상방전에 어느 처녀가 반드시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예로부터 현 장수군 세남면 화음리 수월
부락에서 吳氏 부인이 밥을 짓는데 倭兵이 들러
들어 구방을 만지니 일어나서 부엌칼로 구방을 잘
라 썰어 던지며 하는 말이 장수 사자를 살아서 썰어먹어
소장의 귀를 아는 귀중한 것인데 되려서 늙은 손이
달았다 하며 일어나서 운명하니 첫사람들이 石門碑
를 세워 처혼을 위로하려고 하면 장수군 산서면
백운리에 정녀가 있다. 이 정녀가 처사부인 정녀이다
처사부인 정녀는 정유재판 때 어린 딸을 업고
산으로 피난을 가다가 처사를 만나 심혈행거 하니.

천년 설박에서 투신 자살 하니 후인도 설무라 하
며 나라에 상소하여 명성의 특혜를 얻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곳곳에서 당했다 할 것이니 韓國
女인을 연회에 소개나 고음은 피했을 것 이다
다만 가정은 양가의 수절하는 부인들이는 차이를
알지 보았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妓生은 절치연희
에 나오는 짐박의 광고를 하였을 것 이다
義岩婦人是 兪수를 잘을 일을 생략하고 수안 가문
불치 사가아름을 거처에 들리와 하였다고 칭찬다. 그
당시 습관이 妓生은 姓을 쓰지 않던 것도 사실 이기는
하다. 의암 부인의 성은 朱氏이며 黃鄉은 新安
이다. 朱門의 家譜를 보면 中國 宋나라
성현 朱子를 종시소로 계통을 이었으며 지금도
후손들의 血統에 관한 사부님은 대관하여 당시의
부친의 서당 訓長이였으며 그 딸로서 사가 거문에
대한 성신학 교훈은 兪수에 실려 박혔을 것 이다

그런 후엔 거역에다 자기 姓을 기록할지 안하
하며 어찌서 불렀던 兒名이나 號名을 기록하였지
설코 자기 本名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은 자꾸리 장
선한 상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기는 여하간에 선책이 나가야 적을 대할수 있고
적을 대해야 兵수를 살수있다는 理를 밝히었는
것이다. 또한 의암부인은 무남독녀 인 女의 양친이
별세한 후에 자사 하였기 때문에 이문의 姓을
추적할 길이 없으며 公文書의 姓籍만 보고
女生 姓도 없는 이름 論介를 전제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 일것이다. 전주 남강 위암상에 義
姓 論介之門 이란 號閣 가 있다. 이 성씨는
의암 자사후 二十八年 만년 1622년 9월에 倭
兵 南 德 夏에 出師 공회사를 나와
출병했고 4월에 公회사를 승병하여 1622년
3월에 西歸한지 29년이 지난후의 의암의 遺蹟

뜻을 결이 없었으므로 妓籍을 보고 공책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성도 있는 이름 2석 緋介 撰
이었던 것이 분명하며 또한 이기 지문내에 義岩
事蹟 碑銘이라는 碑石이 있는데 1722년
4월에 觀察史 의 공책서에 의해
사실인 바와같이 이 碑文 內容을 보면 宣祖朝
부터 유 몽인의 野談을 참조하여 바문을 지었
는데 아담이란 선처 2할수도 있고 아갈수도 있는
데다가 다갈수있는 이야기인데 이 바문을 보면
그게로 믿어야 할것인가?

장수 의암사 경내에 있는 嘉石 義妓 生長 鄉
賢名 碑를 살펴 본다. 이 비석아름이 추석의기
생강창 수평비 이나 바문 내용은 선처 거생비가
아닌 良家의 한 女子 비가 분명하다.
또한 추석루 경내에 있는 의암 사적 비명 과.

장수 의암사 절내에 있는 수명비는 선대를
 비교해 보면 의암사적 비명은 1722년에 건
 립되었고 수명비는 1846년에 전림득이 건립하고
 124년이나 되나 의거 수명비 전립자 鄭育錫
 현감의 지은 비문 내용이 전주에 있는 의암사적
 비문과 유사한 점으로 보아 전주에 있는 비석의
 비문을 참조한 것이 분명하여 오직 고증률이 모두
 유 몽인의 야습을 参照한 결과가 되었으며
 수명비 비문을 살펴보면 疾風板蕩 不勻不易
 烈士所難 而一女子 辨別大義 視死如歸
 전쟁으로 상황이 참으로 어지러져 나라에서 각스런 힘이
 보이지 못하여 영웅이나 열사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 한데 한 여자가 개벽을 분별하고 죽음을
 아녀자가 겁에 등아주듯 가벼웁게 보았으며 어찌

거행이였다면 而一女子가 아닌 而一姓로 기록
되었어야 했을 것이요. 而一姓은 宗家에 속
부인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며 何其烈也 라는 구
절은 그 부인이 거행이였다면 반드시 節이라 하였어야
당연 할 것 같다. 그러므로 부인이 거행인지 아닌지
분명치 못하므로 何其烈也 라고 기록치 못하오烈
로 얼마 무런것이 분명하다. 또한 同 碑文에
想像當日 凜然烈氣 炳如日星 何其壯也
이라 하였는데 거사당일을 생각해 보니 그 영웅한
烈女의 기개가 하늘의 해와 별같이 빛났으니
어찌 장하다고 아니 할 것인가 하였는데 등 문장에
서 凜然烈氣란 분명히 烈女의 기상을 말한
것이며 등 비문에 愧余又旬 腐儒 終无
成己之功. 吾於如斯人 盡功義烈
이 말은 부끄럽다. 남아가 세상에 나의 충의의

공을 세우지 못하고 육순의 부유로 이제까지
 이 사람의 죽은 후의 뜻을 공에 감복하며 살아
 갈 것이니 하는 의리가 내리 되었는데 차기 육순은
 물론 뒷사람에게도 의열을 본보기로 살아야 하는
 뜻인데 과연 한 官長이 오고 또 을 왕생들에게
 교수가 되고 권했다는 말인가. 또한 대등한
 선조조 子孫에 보면 論介抱將於 峭岩이
 한이 있다. 이 글에는 정유제란의 무사 서원에
 장의사 김천일이 소영병이 거의 6만 (丁酉新亂
 牧使 孫元禮 倡義使 金千鎰 所領兵
 幾至之萬)

比前為十倍 人皆謂其城無慮。
 무사 서원에는 장의사 김천일이 통솔한 군대가 6만
 명이고 전에 김서원 장군이 城을 지키는 때 비하면
 10배나 많은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근심이 없었는지

“論介獨愛 千鎰其門 對曰 前則
兵難少 將相相愛 另令出一 此為
得勝之本” 성내에 관련과 우리 군사가
전에 비해 십 배나 많은 아무리 적군이 많이
은하하여도 무사하리라 하고 안심하는데 論介는
결은 근심에 잠겼다. 무슨일로 근심하느냐고 선일의
물음에 는게 대답이 전에 십이면 장군이 크게 이길
때는 우리 군사수는 적의 호행이 분명하고 지휘관이
하나였으며 장수는 군사를 사랑하고 군사는 장수를
따랐는데 지금은 비록 군사는 전에 비해 10배나 되나
장수는 군사를 아끼지 아끼하고 군사는 장수를 따르지
아니하여 군중에 통솔이 없으니 이것이 근심되라
하엿다하미의암 무인의 여의한 안목으로 전사를 예측
하엿다하 말이었다. 이등 처음 내용은 정유사관 때
기록하였는데 전주성 사관에서 우리 군사가 처한 것은

계4년 즉 1593년 8월 29일 밤이며 이날
최경희, 김천일, 고종우 장수들이 남창에서
투신 순절 하였음은 세상이 인정하는 바이며 또한
이책이 말한대로 의암이 거행 하였다면 20 만석과
우리 군관원 10 여만이 생사의 적선은 알두고
작성 함포회 같은 사격에 나갈수 있으며 목사
서천여와 창의사 김천일은 꾸짖을수 있거나
하는 의문이다.

조사자가 확인한 사적과 문헌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남창현에 위치한 의기 논계 서문과 동문내에 위치한
의암 사적 비명, 장수 의암사 경내에 위치한 의암수영대
유공인의 야합 (조사자도 보지 못하였음) 장수지
선부지, 호남지, 대동지문, 호남철취록, 철강사지 등을
조사하였으나, 한 절갈이 할 맥 상 통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구분대로 기록하여 선빙성이 없으며 최근

史因을 究明 하여 기록했으니까 寫은가 하는
의문이며 또한 기록들을 일따가 만들어 할 것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또한 의암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 생애의 기록은
좌우 오의무중이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 일 것이다.

이 무인의 사적이 이처럼 희미해진 가장 큰 원인은
혈족이 없어 생애와 업적을 담겨놓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朝鮮祖 社會가 반성의
思想으로 인해 너무 약했기 때문에 후원이 사실이
되고 사실이 후원되어 온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고종의 12代는 양가의 현숙한 무인이었다고 생각
하는 하면 야담을 기초로한 각종 문헌은 校초이라
생각하니 야담 그 자체가 12代를 기록한 문헌인데
생략부의 구원은 사실이 되고 생략부의 구원은 부정이
된다면 약해서 의암이란 인물의 생략 그 자체가 마저

1972년 한국일보사가 연재하다가 이차 장수군민의
저변 향취에 부딪혀 연재를 중단하였던 소설 논쟁을 보면
2월 15일자 13회 연재에 이 고장 장수대성 황실조고
황실조고 소설 황실 조 고를 흥미로운 황실이
장수 무에 대해 가므로 그를 따라 장수에 가듯
이 기록하였는데 황실이란 증명 이인이 있었는지는 모르
나. 장수에서 황실이란 무인이 없었으며 만일 증명
병사 황실을 기록한다면 황실 조고는 남천 대성이며
의암은 장수대성이고 연령 차이는 황실 조고는 1550년
생이며 의암은 1574년 생인 가락에 연령차가 24세가
되며 1592년을 기준으로 생략 되어 보면 황실 조고는
42세인데 42세 무인을 소설 한층이라 할수 있는가
현역 장수의 부친이며 명운대학교의 부총장 교수가
이렇게 부친하여 오류를 범할진대 400년전에 교동현의
동원 사설이 없는데 실어사 선의권을 황실이라 정학한

부정인 것은 모든 것을 낳게 된 . . . , 한자 12
각각 당시 각자의 유일한 증거물이자면 그 성취에 들어
가든 수단이고 방법이었으면 그 이상 거행이란 고승은
무엇으로 한다면 말인가? 문제는 현상이나 아나카
증현것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살신봉사 정신이
증현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선무후무한 조국의 여성
세계 꼭 거행이란 이름을 취해서 썩을 아무이것도 없으며
정신을 증배함에도 거행을 증배한 것 아니지만 오히려
여조왕생에게 교훈될 중대한 사실이라고 볼 때에는
거행이 아니었었는데 남성의 원수를 살고 나라에
충성하기 위한 제책이었음을 사실대로 밝혀주어야
할 줄 안다. 이문제는 오히려 사는 자의 인성이 어느
일편을 보고 사가 의전만을 주장한 현실이 아니라
사야를 넓게 하여 조국하고 사절을 기병하여
정사에 거룩함이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 교육적
차원에서나 후세의 교훈을 위하여 거행한 일인 것이다.